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확신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41장 '확신'(원문 끝에 '제42장'이 이어지므로 41장으로 봄), 441~448쪽 무렵(본문 속 쪽 표시 기준)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선 33장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단계를 살펴 왔습니다. 필사, 본문 비평, 번역, 설교, 해석 같은 단계입니다. 이 장은 “단계마다 오류가 끼어드니 갈수록 확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예로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야 성립하고,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의 독립적인 추론이나 학자들의 합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의 '전제', 곧 다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것을 똑같이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의 원뿔'로 확신의 정도를 나누고, 성경이 확신과 의심을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 살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오는 과정은 혼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확신이 자라 가는 여정이고, 이 여정은 다음 장의 주제인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 절별 정리

📜 1. 길고 고된 여행? 아브라함처럼 듣는다

프레임은 반대쪽 걱정을 먼저 정직하게 꺼냅니다. 필사, 본문 비평, 번역, 편집, 가르침, 설교, 성례, 신학, 신앙고백, 전통, 해석, 이해까지 단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처음 쓴 원문은 안개 속에 가려지고, 단계마다 오류가 들어와 확신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만일 본문과 번역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없다면 믿음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같은 이유로 계시를 '내용 없는 신비 체험'으로 보는 입장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과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도 바로 그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 단계마다 오류가 들어오니 확신이 준다는 걱정
2. 실제 성경 읽기는 아버지 음성을 듣는 일
3. 아브라함은 신약이 내세우는 믿음의 모델
4. 믿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약속을 믿는 것
5. 내용 없는 신비 체험으로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

> **창세기 15:6**
>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의로 여겨짐. 믿음의 원형
>
>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로마서 4:3 · 갈라디아서 3:6 · 야고보서 2:23**
> 창세기 15:6이 신약에서 세 번 인용됨.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증거
>
> **로마서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
> **갈라디아서 3: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
> **야고보서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 **로마서 4:1-25 · 갈라디아서 3:6-29**
>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보기라는 바울의 논증
>
> [1] 그러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

갈라디아서 3:6-29 [6]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

요한복음 8:56 · 히브리서 6:13-20 · 히브리서 11:8-22 · 야고보서 2:21-23

신약 곳곳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내세움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서 6:13-20 [13]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히브리서 11:8-22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

야고보서 2:21-23 [21]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 2.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은 전해 들은 말씀 위에 선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렇다면 설교도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프레임은 오늘날 변증가들이 이 본문을 부활의 증거로 쓰는 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오백여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그중 다수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점에 주목합니다. 고린도 교인 대부분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고, 목격자를 직접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안 것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바울의 핵심 주장은 부활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쓰신 사도적 설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의심하면 복음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본문

1. 부활이 없으면 설교도 믿음도 헛되다
2. 고린도 교인 대부분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다
3. 그들은 바울의 설교로 부활을 알았다
4. 사도의 설교 =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
5. 말씀을 확인할 수 없으면 희망도 없다

고린도전서 15:12-19

부활이 없으면 설교와 믿음이 헛되다. 부활이 복음 전체를 떠받침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고린도전서 15:1-12

바울이 받은 것을 전했고 교인들은 그 설교로 믿었다. 목격자 명단도 포함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고린도전서 15:1-3 [1]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11-12 [11]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14

부활을 부정하면 설교도 믿음도 헛되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17

믿음이 헛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걸려 있는 것은 구원 자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3. 확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일을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세대의 신자들이 세상이 뭐라 하든 말씀 위에 삶을 세웠고, 말씀을 삶과 죽음의 위로로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인간 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정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율적 추론, 학자들의 합의, 증거에 대한 독립적 조사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추론이 타당한지, 어떤 학자를 믿을지, 어떤 증거를 받아들일지를 말씀이 판단합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이것이 데카르트식 '정초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연역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이 성경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하나님은 소통의 장벽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2. 아브라함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확신
3. 믿는 자가 느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
4. 말씀이 추론·학자·증거를 재는 잣대다
5. 말씀을 전제로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 **창세기 12:1**
>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의문을 품을 만한 말씀
>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창세기 22:2**
>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양심이 반발할 만한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함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옳음의 궁극적 기준이다.”

📜 4. 남아 있는 문제와 '확신의 원뿔'

사람에게도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행이고, 불신앙을 이겨 가는 이 과정이 성화의 일부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가 신뢰와 순종과 묶여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든 신자는 확신으로 출발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전제'입니다. 누가 여기에 반론을 내놓으면, 당장 반박할 수 있든 없든 그 반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프레임은 동료 리처드 프랫의 '확신의 원뿔'을 빌려 옵니다. 좁은 꼭대기에는 확실한 전제가, 넓은 바닥에는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이, 그 사이에는 의견은 있어도 절대적이라 할 수 없는 문제가 놓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확실하던 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흐릿하던 것이 분명해지기도 하지만, 전체 방향은 더 큰 확신 쪽이라고 그는 봅니다.

1. 성경에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2. 신앙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여행
3. 신자는 확신으로 출발한다
4. 원뿔 꼭대기는 확신, 바닥은 열린 질문
5. 전체 방향은 더 큰 확신 쪽이다

> **마가복음 9:24**
>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신앙을 이겨 가는 여행(번역본의 '마 9:24'는 마가복음의 오기로 보고 바로잡음)
>
>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 **요한일서 5:13**
>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안다'. 신앙의 출발점에 있는 확신
>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요한일서 5: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태복음 16:16 · 요한복음 6:69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신자의 기본 고백이자 전제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창세기 4:17

가인의 아내 문제. 원뿔 바닥에 있는 질문의 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사사기 11:29-40

입다의 서원. 원뿔 바닥의 예(번역본의 '사 11:29-40'은 사사기로 바로잡음)

29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33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

미스가 15:32-36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마태복음 24:36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의 '모르심'의 성격은 중간 지대의 예(번역본은 '마 26:36'이나 문맥상 24:36으로 보임. 원서 확인 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 5. 성경은 확신을 귀하게, 의심을 위험하게 본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계시의 진리를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며, 실제로 안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소망의 단단한 기반입니다. '확실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드물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배운 것의 '확실함'을 알기 원했고, 부활 후 예수님이 보이신 '확실한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약속과 맹세,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영혼의 닻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거짓 가르침이 넘치는 세상에서 성경을 확실한 길잡이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의심은 대개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이고, 마태복음 14:31과 로마서 14:23에서는 믿음의 반대이므로 죄입니다. 이 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이상이 완전한 거룩이듯, 마음의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1. 성경은 신자가 진리를 '안다'고 말한다

4. 분명한 계시를 의심하는 것은 죄다

5. 마음의 이상은 계시에 대한 절대적 확신

마태복음 9:6

인자의 권세를 “알게 하려 하노라”. 앎을 목표로 하신 예수님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3:11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됨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요한복음 7:17

뜻을 행하려는 자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알 수 있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4:17

신자는 진리의 영을 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7:3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가복음 1:4

배운 것의 '확실함(아스팔레이아)'. 성경이 확실성을 목표로 삼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1:3

부활 후의 '확실한 증거(테크메리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23:47

백부장의 “정녕(온토스) 의인이었도다”. 확실함의 언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히브리서 6:18

약속과 맹세,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19

그것이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닻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확실한 길잡이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19-21

더 확실한 예언. 거짓 가르침 속의 확실한 인도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마태복음 14: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로마서 14:23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 의심이 죄가 되는 경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태복음 21:21 · 마태복음 28:17 · 사도행전 10:20 · 사도행전 11:12 · 디모데전서 2:8 · 야고보서 1:6

의심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로 그려짐(디모데전서 2:8은 개역개정에서 '다툼'으로 옮겨져 있음)

마태복음 21: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도행전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1: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디모데전서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프레임은 곧바로 균형을 잡습니다. 앞의 구절들은 분명한 계시 앞에서 고개를 드는 의심을 다룹니다. 그러니 의심이 언제나 죄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 때도 많고,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안다고 착각했고,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기독교 인식론자 에스더 믹은 앎을 단서를 읽고, 패턴을 잡고, 헌신하고, 정직한 의심을 존중하는 '탐구'로 설명하며, 삶의 대부분에서는 확실성보다 신뢰를 목표로 하자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확실성이 목표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심에 머물지 말고 기도, 성례, 가르침 같은 영적 자원을 모두 써야 합니다. 이미 확신하는 계시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한 확신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필사에서 이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혼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류는 들어오지만 바로잡히기도 하고, 확신의 궤도는 위로 향합니다. 이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다음 장의 주제인 성령이십니다.

1. 분명한 계시를 의심하는 것만 죄다
2.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다
3. 삶 대부분에선 신뢰, 말씀에선 확실성이 목표
4. 기도·성례·가르침·순종으로 확신이 자란다
5. 오류는 들어오지만 바로잡히고 궤도는 오른다

> **신명기 29:29**
>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함.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수 있음
>
>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 **로마서 11:33-36**
> 하나님의 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음
>
>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6

바울도 세례 준 사람 수를 확실히 몰랐음. 모든 불확실함이 죄는 아님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야고보서 4:13-16

내일 일을 아는 척하지 말라. 지나친 확신에 대한 경고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욥기 38-42장

친구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했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를 인정함

"단계마다 오류가 침투하지만 오류는 또한 시정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확신·확실성(certainty)

저자 친필 원문(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쓴 원본으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집니다.

본문 비평
여러 사본을 비교해 원래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인격적 말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입니다. 정보 전달을 넘어 다스리는 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지닙니다.

명제적 계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처럼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계시입니다.

전제
다른 모든 생각을 판단하는 맨 밑바닥 기준입니다. 프레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놓입니다.

자율적 추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 이성을 최종 판단자로 삼는 생각 방식입니다.

정초주의
의심할 수 없는 몇 가지 기초에서 모든 지식을 이끌어 내려는 철학 입장입니다 (데카르트가 대표적).

성화
의롭게 된 신자가 평생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프레임은 확신이 자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확신의 원뿔
리처드 프랫의 그림입니다. 위로 갈수록 확실하고 아래로 갈수록 열린 질문이 많아집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실제로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독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 확신은 인간의 추론이나 학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은 모든 판단의 기준, 곧 전제입니다.
- 확신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핵심 고백은 확실하고 많은 질문은 열려 있지만, 전체 방향은 더 큰 확신 쪽입니다.
- 분명한 계시를 의심하는 것은 죄이지만, 모든 불확실함이 죄는 아닙니다.
- 말씀이 오는 과정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며, 이 여정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3편 ·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